

'83 에너지運用計劃

李 東 圭

〈動力資源部 資源開發局 企劃課長〉

I. 世界에너지 動向과 展望

1. 最近의 世界에너지 動向

1) 石油市場 動向

最近 石油市場은 지난 79년부터 시작되었던 第2次 石油波動의 餘波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市場秩序가 形成되고 있는 狀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需要側面을 살펴보면 先進諸國의 景氣回復遲延과 世界 各國의 積極적인 에너지 消費節約에 따라 石油消費는 81년도에 이어 82년도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供給側面에서는 産油國의 過剩生産이 持續되고 있는바, OPEC는 이러한 供給過剩 事態를 방지하기 위해 生産 上한선을 설정하여 各國의 原油 生産量을 一定水準 以下로 制限코자 若干 몇 차례의 公式 또는 非公式의 會議를 가진 바 있다.

82년 3월에는 에쿠아도의 키토(Quito)에서 OPEC 총회가 開催되어 OPEC 전체 産油量을 1,750만 B/D로 合意함과 동시에 各國別 生産

割當量을 決定하였으나 一部 産油國의 超過生産에 따라 事實上 上記 生産制限量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82년 12월 비엔(Wien)에서 開催되었던 會議에서는 이러한 事情을 감안, 전체 生産量을 1,850만 B/D로 늘리는 데 合意했음에도 불구하고 各國別 割當量 설정에 失敗함으로써 82年末頃에는 OPEC의 原油生産量이 1,950만 B/D水準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OPEC가 物量面에서 행동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은 사우디를 제외한 상당수의 OPEC 會員國들이 自國內의 財政 形편상 보다 많은 物量을 販賣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OPEC 전체로서 財政收支의 均衡을 維持하려면 최소한 2,270만 B/D의 原油를 販賣해야만 한다고 하나 82년말 現在の 産油量이 1,950만 B/D水準에 不過하다는 事實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最近 83년 1월 23일 제네바에서 또다시 OPEC 總會가 開催되었으며 이때에도 OPEC全體 産油量을 또다시 1,750만 B/D로 줄이는데는 合意가 이루어졌으나 各國別 生産割當量 결정에는 거듭 失敗함으로써 OPEC의 生産過剩現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 같은 OPEC의 生産上界限 超過와 더불어 멕시코 등 非OPEC 國家는 OPEC 國家가 高原油價格을 維持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價格으로 原油를 販賣함으로써 급속히 세계 원유시장에 침투, 81년에 2,120만 B/D 生産

石油 需要 (百萬B/D)

80	81	82
48.9	47.0	45.5
(100)	(96)	(93)

現物市場價格
(A-L基準) (\$/Bbl)

82.1	82.8	83.1	83.2
34.00	33.00	30.40	29.00

을 시현한 후 82년에는 2,430만 B/D水準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OPEC 生産量을 앞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需要는 계속 減少되는 데 비해 供給은 保合 내지 增加됨으로써 現物市場에 있어서의 原油價格은 계속 下落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消費國들은 가급적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子입을 試圖하고 있는 狀況이다. 그러나 反面 産油國의 立場으로서의 自國의 原油를 公示價格으로 販賣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石油消費國으로서의 여러 가지 直間接的인 影響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需給不均衡은 결국 産油國의 原油價 引下 壓力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난 83.1월의 OPEC 會議 決裂以後 原油價 引下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石炭市場 動向

石炭의 경우도 한때 代替에너지로서 그 需要가 急激히 增加할 것으로 展望되었으나 最近의 需要減少에 따라 在庫가 增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價格도 현저히 弱勢를 나타내고 있다. 世界 石炭市場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이나 濠洲에서도 石炭의 輸出價格은 82년말 現在 前年對比 14% 이상 下落하고 있는 것이다.

3) 83년도 世界에너지 事情評價

이상과 같은 事情을 고려하여 볼 때 83년중에도 특별한 狀況變化가 없는 한 에너지 需給 및 價格面에서 弱勢가 持續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2. 中長期 展望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國際 에너지事情

은 石油를 비롯해서 其他 石炭 등 에너지全般에 걸쳐 弱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狀況이 당분간은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中長期의 展望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不安要因을 內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石油의 경우 先進國은 石油消費增加가 거의 없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나 開發途上國은 繼續的인 經濟開發 慾求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石油消費가 增加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전체적인 消費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IEA는 2000년까지의 石油 消費增加率을 先進國은 $\Delta 0.8 \sim 0.5\%$, 開發途上國은 $3.9 \sim 5.3\%$ 로 展望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0.8 \sim 2.0\%$ 씩 石油消費가 늘어날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消費增加에도 불구하고 供給側面에서는 産油國의 政情不安, 賦存資源量의 限界 및 石油資源의 地域的인 偏重 등의 原因에 따라 供給의 制約이 따를 것으로 展望되어 中長期의 展望으로는 또다시 供給不安 事態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專門家들은 80年代 後半以後 또 한 차례의 石油 波動을 경고하고 있으며 石油價格도 80년 中半부터는 上昇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石油 需給上의 不安要因에도 불구하고 最近의 一時的인 石油價格의 下落으로 石油代替 에너지 開發을 위한 投資減少 또는 自然사태가 發生하고 있어 장래의 에너지 상황에 暗雲을 드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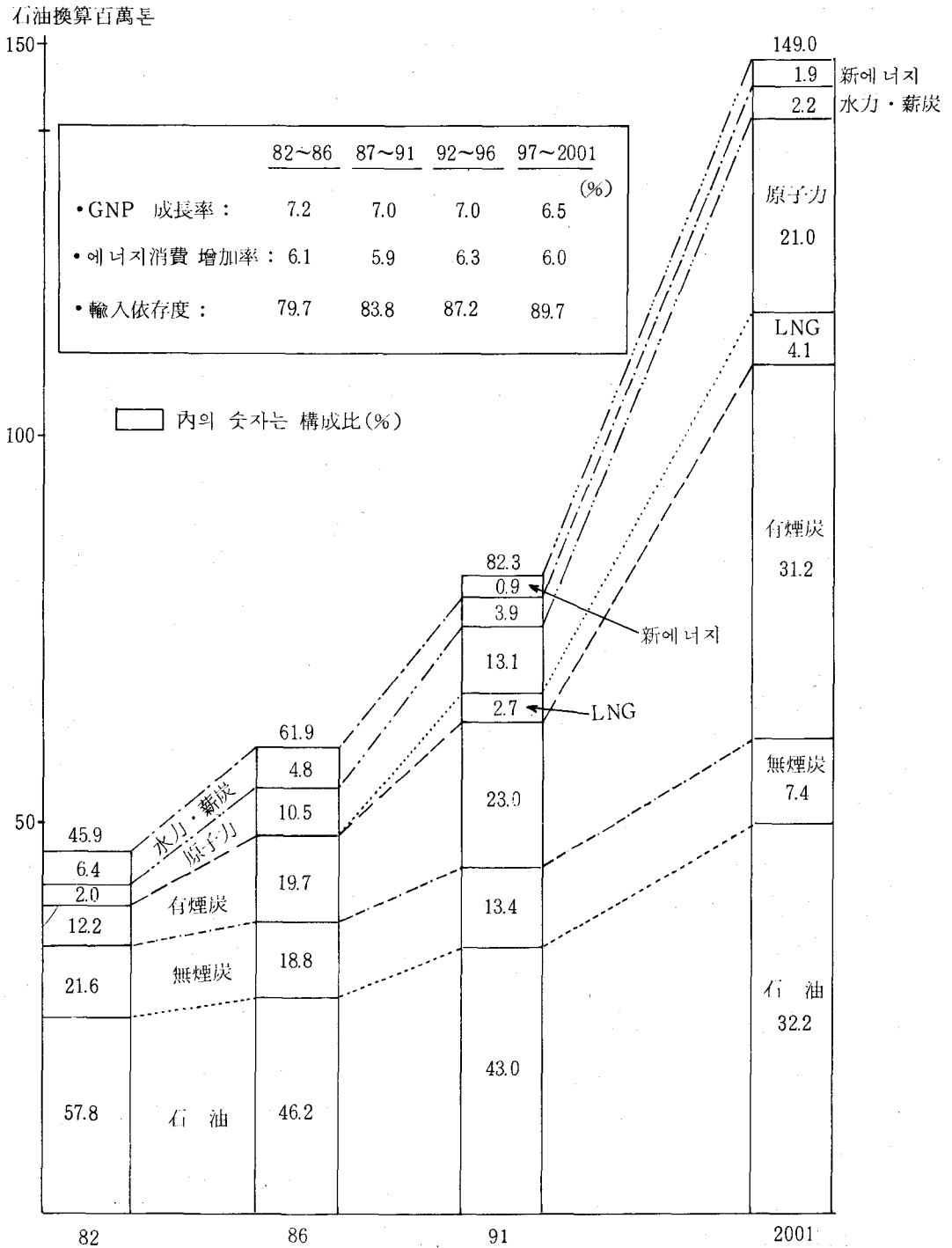
또한 現在까지 石油代替에너지로서 大量實用化가 實現된 原子力發電의 경우도 各國의 反核 運動 擴散 등 制約要因이 있으며 太陽熱 등 新에너지도 今世紀內에는 전체에너지 需給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展望이다.

II. 우리나라 中長期에너지 需給計劃 및 展望

以上과 같은 中長期의 狀況下에서 우리나라에 中長期 에너지 需給構造를 暫定的으로 展望해 보면 <表-1>과 같다.

우리나라가 2000年代까지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6.5 \sim 7.2\%$ 씩 이룩해 가려면 에너지 消費

〈表-1〉 우리나라 中長期 에너지需給計劃 및 展望



註 : 83.6월 KDI 의 " 2000 년대를 위한 국가발전 장기구상 확정후 조정할 계획임.

는 5.9~6.3%씩 增加되어야 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은 絶對物量の 增加外에도 전체에너지 消費構造面에서 상당한 變化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는데,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년에 57.8%를 차지했던 石油依存度는 2000年代에 가면 32.2% 水準으로 낮아지게 되고, 반면 有煙炭과 原子力을 각각 12.2%, 2.0%에서 31.2%, 21.0%로 急激히 增加하게 될 것이다.

한편 無煙炭은 國內 生産量の 限界로 2000년까지도 1982년의 水準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나 전체에너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져 82년의 21.6%에서 2000년에는 7.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中長期 需給展望은 물론 그 適正性여부가 여러 각도에서 보다 면밀하게 檢討되어 確定되면 모든 에너지 政策은 이러한 需給構造로 誘導해 나가는 데 그 焦點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Ⅲ. 83에너지 需給計劃

上記와 같은 中長期 需給下에서 83년도 에너지 需給計劃을 分析해 보면 <表-2>와 같다.

먼저 總에너지 消費量은 48,285 石油換算 千톤으로서 82년의 45,876 千톤에 비해 5.3%가 增加할 것으로 計劃하였는데, 이는 83년부터 國內 景氣回復이 本格化될 것이라는 점을 勘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 物量の 增加外에 각 에너지 源別 增加率을 살펴보면 有煙炭, 水力, 原子力 등이 平均 增加率을 훨씬 웃도는 增加率로 計劃된 데 비해 石油, 無煙炭 등은 中長期 에너지 適正需給方向으로의 誘導을 위해 最少限의 增加率만을 계획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 에너지政策의 體系

上記와 같은 狀況下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政策方向은 첫째,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世界에너지 狀況을 勘案할 때 전체적인 에너지의 消費增加를 줄여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消費節約은 단순히 必要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次元보다는 必要한 곳에 使用되어 어떻게 하면 그 效率을 極大化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推進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合理的利用과 이러한 節約運動의 體質化가 強調되어야

83 에너지 需給計劃

<表-2>

源別	年度 單位	'82 (暫定)			'83		
		構成比 (%)	增加率 (%)	構成比 (%)	增加率 (%)		
石油	千 Bbl	180,260	57.8	△ 1.1	180,950	54.7	0.4
無煙炭	千 톤	20,975	21.6	△ 2.0	21,861	21.4	4.2
有煙炭	"	8,453	12.2	13.7	10,045	13.7	18.8
水力	G W H	2,009	1.1	△ 25.8	2,561	1.3	27.5
原子力	"	3,712	2.0	28.1	7,714	4.0	107.8
薪炭	千 톤	8,633	5.3	△ 3.0	8,416	4.9	△ 2.5
(電力)	(G W H)	(42,996)	(22.7)	(6.9)	(46,850)	(24.0)	(9.0)
計	千 TOE	45,876	100.0	△ 0.4	48,285	100.0	5.3
輸入依存度 (%)		74.5			74.9		

註: TOE는 石油換算 톤

할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 에너지 消費량을 最少化함과 同 物量을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充當할 것인가가 問題된다.

이때 考慮되어야 할 것은 가장 安定的인 에너지를 가장 低廉하게 供給해야 한다는 點이 基本 目標가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需給狀況을 檢討해 보면 現在 石油에 지나치게 依存하고 있는 構造를 脫避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며, 한편 우리에게 必要한 에너지資源이면 石油든 國內資源이든 또는 其他 輸入資源이든간에 安定的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前章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長期的으로 是 現在의 化石燃料(Fossil Fuel)가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에너지의 開發에도 力點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政策體系는 消費節約·安定供給·新에너지 開發의 세 가지 方向으로 압축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上記 에너지政策의 큰 테두리 내에서 그때 그때의 世界에너지 狀況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 部門別 推進計劃

이상과 같은 에너지 政策의 基本體系下에서 각 部門別로 推進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消費節約

1) 82 實績評價

80년부터 本格的으로 推進해 왔던 에너지 消費節約 施策은 그간 상당한 效果를 나타낸 것으로 分析되고 있는바, 特히 지난 1982년에는 6.0%의 GNP 成長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消費가 0.4% 減少되고 있는 것으로 暫定 集計되었다. 過去의 趨勢로 보면 6% 정도의 GNP 成長을 이룩하려면 에너지 消費도 6% 정도 增加되는 것이 보통임에 이와 같은 成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에너지 消費節約 實績은 에너지管理公團이 82년중에 實施하였던 實際調査 結果로도 確認되고 있다. 에너지管理公團이 調査했던 1,900 個業體에서 9.1%의 節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消費節約의 結果 82년중 에너지 部門의 輸入規模만도 當初 豫想보다 12 億弗 가량이 줄어들어 82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國際收支를 $\Delta 22$ 億弗 水準으로 낮추는데 決定的으로 기여한 것으로 分析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에너지 消費減少는 82년 越冬期中의 異狀暖冬과 에너지 多消費業體의 成長率이 相對的으로 低調했던 데도 그 原因이 있다고 判斷되나 대부분은 에너지 消費節約의 結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에너지節約 要因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82년의 에너지 診斷에 따르면 中小企業의 에너지 損失率이 14.2%에

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한 3·1정신」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3·1정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3·1정신」으로 승화시켜 그 뜨거웠던 민족혼을 영원한 우리의 정신적 자산으로 이어나갈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침략한 세력에 대한 증오와 울분을 이제는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여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가꾸어 나가는 슬기와 襟度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全斗煥대통령 3·1節기념사(1983. 3. 1)에서〉

이르고 있어 大企業의 7.9%에 비해 節約可能餘地가 많다고 보여지며 또한 住宅의 경우에도 新築住宅은 어느 정도 斷熱이 되고 있으나 既存住宅의 경우 斷熱狀態가 不良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推進計劃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政府는 83년도의 에너지節約 目標을 “總에너지의 5% 이상”으로 設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첫째, 現在까지 消費를 絶對적으로 抑制해 오던 單純節約政策에서 에너지의 效率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의 利用을 效率化하는 방향으로 推進해 나가고 둘째, 行政規制를 통한 強制的인 消費節約보다는 消費主體가 스스로 消費節約의 유리한 點을 깨달아 自律적으로 節約해 나가도록 誘導하기로 하였다.

세째, 앞으로는 에너지 效率이 낮은 中小企業에까지 消費節約 施策을 퍼나가되 네째, 現在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效率이 낮은 노후 設備를 改替함과 동시에 새로운 節約技法도 開發普及토록 推進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方向下에 83년도에도 各部門別로 施策을 마련하여 에너지 消費節約을 內實化, 體質化시킴으로써 企業에 있어서는 에너지 費用의 節減을 통한 生産性 向上을 도모하고 國家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輸入을 減少시킴으로써 國際收支改善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2. 石油 依存度 減縮

第2次 石油波動 이후 에너지의 石油依存度 減縮에 最優先의 努力을 競走해 왔으나 82년도의 石油依存度は 아직도 57.8% 水準에 이룸으로써 現在와 같은 “石油不安時代”에 많은 脆弱點을 露呈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石油에 代替되는 에너지로서 世界的으로 賦存量이 많을 뿐만 아니라 價格도 싼 有煙炭·原子力·天然가스의 普及擴大를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다. 特히 最近 들어서 國民所得의 增大와 國內 無煙炭의 生産 限界에 따라 에너지 需要의 高級化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이를 위한 家

庭用 燃料의 가스化도 繼續 推進해야 할 課題로 부각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政府는 石油를 大量으로 消費하는 部門을 中心으로 石油代替努力을 持續해 나감으로써 2000年代에는 에너지의 石油依存度를 30% 水準으로 낮추어 갈 방침이다.

1) 石油代替 電源開發의 促進

國內에서 石油를 가장 많이 使用하는 發電部門이 전체에너지의 石油依存度를 낮추는 데 결정적 要素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政府는 향후 石油使用 發電所 建設을 抑制하고 대신 原子力 및 石炭使用 發電所의 建設에 치중키로 한 바 있다.

또한 國內 水力資源의 開發을 위해 多目的 댐 建設은 물론 利用 可能한 小水力도 最大限 開發할 수 있도록 誘導함으로써 82년 現在 69.7%인 石油依存度를 91년까지는 16.7%로 낮추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같은 原子力 發電의 擴大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管理對策에도 各별한 關心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原子力發電協議機構를 設置하여 原子力發電에 關한 政策方向과 業務調整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必要한 技術人力을 適期에 確保해 나갈 것이며 原子力 發電所의 國産化率도 점차로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特히 問題가 되고 있는 安全管理 問題도 徹底한 管理와 적절한 規制方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2) 産業體에서의 有煙炭 使用擴大

産業體중에서도 特히 에너지를 많이 消費하는 業種이 시멘트 産業인바 政府는 國內의 7個 시멘트 業體의 使用 燃料를 종래의 石油에서 有煙炭으로 代替토록 적극 지원한 결과 83.2월까지 모든 燒成爐를 代替完了하였다.

정부는 83년도에도 産業體에서의 有煙炭 使用을 擴大 普及키로 하고 全 産業分野에 이의 使用을 적극 誘導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늘어나는 有煙炭 需要를 圓滑하게 充足시키기 위해 全國의 主要 항구에 石炭專用 埠頭를 建設중에 있

다. 한편 政府는 小量 需要處에 대한 安定供給을 위해 流通體系도 새로 構築해 나갈 계획이다.

3) 가스 普及 基盤 造成

한편 政府는 늘어가는 가스 消費需要에 對備하여 이의 本格 普及을 위한 基盤을 造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LNG 導入을 적극 推進하는 동시에 이의 國內 受容을 위한 制반 事業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LNG 도시가스도 圓滑히 供給할 수 있는 施策을 펴 나갈 계획이다.

3. 石油의 安定確保

政府의 持續的인 石油依存度 減縮政策에도 불구하고 石油은 2000 年代까지도 우리나라 에너지중 主宗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展望되므로 石油을 安定的으로 確保해야 하는 問題는 가장 基本的인 課題라고 할 것이다.

1982 년에 政府는 國際 石油市場의 變化에 따라 原油價 平準化 制度를 廢止하는 등 石油의 圓滑한 需給 및 低價原油導入을 위한 努力을 強化해 왔다.

그러나 中長期的인 世界 石油事情의 不安定性和 國內에너지 需要構造의 變化에 따라 이에 대한 對策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判斷된다.

이를 위해 政府는 石油의 長期 安定的인 確保 基盤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石油의 自主確保 努力을 繼續해 나갈 것이며 또한 石油 需要의 質的變化에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갈 계획이다.

1) 原油導入 政策의 適正運用

最近의 國際 原油市場 動向에 맞추어 유리한 導入先의 長期 安定的인 確保 努力은 물론 國際 石油事情이 어려웠을 때 체결하였던 不利한 長期契約 物量 및 導入 條件을 단계적으로 調整해 나갈 방침이다. 特히 現物市場價格이 公示價格보다 월등히 낮은 實情에 비추어 現物市場을 통한 低價原油의 導入도 적극적으로 檢討해 나갈 것이다.

한편 政府가 앞장서 原油 確保에 나섰던 이제까지의 購買형태를 止揚하고 각 精油會社의 自律的인 能力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각종 施策을 再點檢해 나가기로 했다.

2) 低公害 油類의 供給擴大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의 위해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政府는 81년부터 低硫黃 油類를 供給해 오고 있는바 86년까지는 輕油의 경우 100%, B-C 油의 경우에는 71%까지를 低硫黃油로 供給토록 할 것이다.

3) 油類 去來秩序의 確立

國內 揮發油에 賦課되고 있는 高率의 特別 消費稅로 車輛用 燃料의 경우 類似石油製品이 발생하고 있는바 政府는 이의 生産 및 販賣를 금지토록 既措置하였으며 앞으로 油類의 積貯 品質을 維持하기 위해 서울 및 5個 市道 專門檢査機關을 設置할 계획이다.

이 밖에 定量去來秩序 確立을 위해 油槽車 등에 오일미터기 및 法定計量器의 使用을 義務化하였으며 83년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指導 監督해 나갈 것이다.

4) 油田開發의 推進

國內外에서 그 동안 推進해 오던 油田開發 事業은 83년중에도 繼續해 나갈 계획이며 特히 油田開發을 支援하기 위한 각종 體制를 整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國內 大陸棚 長期開發 계획을 수립하고 國內 大陸棚 租鑛契約 基準을 設定할 예정이며 유망한 海外鑛區의 確保에도 努力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러한 油田開發을 支援하기 위해 石油事業基金에서 별도의 基金을 造成토록 할 것이며 이 밖에 國內에서 石油試驗船을 建造하여 이를 運營토록 추진중에 있다.

4. 國內外 資源開發

82년중 國內 無煙炭은 生産增加, 炭質向上, 鑛山保安面에서 상당한 效果를 거두었으나 反面 消費減少에 따라 窒化문제가 發生하는 등 問題

點을 노정해 온 것도事實이다. 이와 같은長點에도 불구하고 83년중에는 石炭供給餘力の發生으로 需給上 安定勢를 보일 것으로 豫想되는바 이를 최대한 活用하여 生産性和 鑛山保安을 고려한 合理的인 生産體制를 構築하고 需給不均衡 現象에 適應力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國際的인 與件을 보더라도 好轉된 海外資源開發 進出 기회를 최대한 活用하여 積極적인 資源開發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石炭의 合理的인 生産基盤 構築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石炭産業에 있어서의 鑛區 大單位化和 炭鑛 機械化는 石炭의 합리적인 生産基盤構築을 위한 必須條件이므로 이의 推進에 繼續的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2) 石炭需給의 安定體制 構築

政府의 需給 調節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政府 備蓄 夏季貯炭을 계속 強化해 나갈 방침이며 石炭의 效率的인 活用 技術의 開發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支援制度의 效率化

한편 政府는 現在까지 서민용 煉炭 價格을 낮은 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하여 資本補助 및 經常補助를 持續해 왔으나 向後로는 價格補助的인 經常補助는 原則的으로 廢止하는 대신 業體의 競爭力을 強化시키고 産業의 합리적인 育成을 도모토록 하였다. 또한 石炭事業에서 생긴 利益은 石炭産業으로 再投資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갈 방침이다.

4) 鑛山 勤勞者의 福祉增進 및 環境改善

이 밖에 政府는 年次計劃에 의해 鑛山地域의 綜合開發 計劃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갈 것이며 環境改善 事業도 가일층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5) 海外資源 開發의 促進

82년중에는 史上 最初로 海外에서 우리가 開發한 有煙炭 27만톤이 國內에 入荷되었는바 海

外資源의 開發輸入은 資源의 安定確保라는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앞으로는 海外資源開發時 經濟性을 事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開發業體를 支援할 수 있는 方法을 強化하고 또한 政府次元에서의 資源外交를 통해 進出 與件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公海上의 深海低 鑛物資源 開發에 參與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5. 電力의 安定供給

電力部門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에 必要한 電力을 安定的으로 供給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韓電 등 電力事業體의 經營管理을 改善해 나가는 한편 그 동안 中斷되었던 農漁村 電化事業도 83년부터 再開할 방침이다. 特히 送配電 能力의 擴充도 年次的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6. 新에너지 開發

現在 新에너지에 關해서는 世界的으로도 研究開發이 初期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大量 實用化에는 아직 미급한 實情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政府는 經濟性和 技術性이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普及해 나가되 長期 實用化를 目標로 先進技術의 導入 및 開發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 特別 力點事業

政府는 83년중 에너지價格 制度의 改善과 安全管理의 強化에 特別히 力點을 두어 推進키로 하였다.

특히 에너지 價格制度는 現在의 여러 가지 不合理한 要素를 中長期 政策方向下에 改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의 合理的인 改善方案 研究에 보다 깊은 研究를 기울일 방침이며 또한 앞으로 급격히 普及될 것으로 展望되는 가스의 安全管理나 매년 發生하는 鑛山災害의 防止를 위해서도 各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